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26

孤山智圓法師阿彌陀經疏序云
고산지원법사아미타경소서운
夫心性之爲體也 明乎靜乎一而已矣
부심성지위체야 명호정호일이이의
無凡聖焉 無依正焉 無延促焉
무범성언 무의정언 무연촉언
無淨穢焉 及其感物而動 隨緣而變
무정예언 급기감물이동 수연이변
則爲六凡焉 爲四聖焉 有依焉
즉위육범언 위사성언 유의언
有正焉 依正既作則身壽 有延促矣
유정언 의정기작즉신수 유연촉의
國土有淨穢矣
국토유정예의

而能達唯心無境矣 雖風樹鳥聲
이능달유심무경의 수풍수조성
有入耳之娛 而非聽之音 而能念三
유입이이지오 이비침체지음 이능념삼
寶有歸矣 夫如是則復乎明靜之體者
보유귀의 夫如是則復乎明靜之體者
如轉掌耳
여전장이
予謂圓師 深知吾佛善權本末者也
유위원사 심지오불선권본말자야
今引繁文 庶使今時求淨土者
금인번문 서사금시구정토자
知佛意而修之 不任用功耳
지불의의수지 불용공의

고산 지원 법사는 <아미타경소>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성(心性)의 본체는 밝고 고요하여
하나일 따름이다. 거기는 범부도 성인
도 없고, 의보(依報:인간이 의지해 사는

우리의 부처님 대 성인은 밝고 고요
한 하나를 얻은 분이다. 이에 자비의
방법을 빌려서 해내는 중생으로 하여
금 그 근본에 돌아가게 하고자 육신이
없지만 육신을 나타내고, 국토가 없지

“밝고 고요한 본체로 돌아가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국토, 집, 의복, 음식 등도 정보(正報)과
거의 업에 의해 현재에 받은 몸도 없
고, 수명의 길고 짧음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물에
감응하고 인연에 따라 변할 때에는 여
섯 가지 범부 즉 지옥, 아귀, 축생, 아수
라, 인간,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네
가지 성인도 되며 의보(依報)도 있고,
정보도 있게 된다. 이미 의보와 정보로
태어났기에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
고, 국토에는 더러움이 있다.

만 국토를 나타내어 수명을 늘리고 국
토를 깨끗이 하여 그들을 즐겁게 하거
도 하고, 수명을 단축하고 국토를 더럽
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싫어하게도 하
신다. 그들을 기뻐하고 싫어하게 하여
차츰 깨우치는 방법을 행하게 된 것이
다. 예를 들면 보배로 된 누각이나 금으
로 된 연못은 눈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
리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마음을 출
리고 방탕하게 하는 빛깔이 아니다. 여
기에서 마음의 경계가 없음을 밝게 알
수 있다. 나무의 바람소리와 새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이는 마음을
흔드는 음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에서
능히 삼보를 생각하고 귀의할 수가 있
다. 그렇다면 밝고 고요한 본체로 다시
돌아가기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

吾佛大聖人 得明靜之一者也
오불대성인 득명정지일자야
乃假道於慈 託宿於悲 將欲離迷
내가도어자 탁숙어비 장욕구근미
使復其本 於是乎無身而示身 無
사부기본 어시호무신이시신 무
土而示土 延其壽淨其土 俾其欣 促其
토이시토 연기수정기토 비기혼 촉기
壽穢其土 俾其厭
수예기토 비기염
既飲且厭則轉之策 行矣 雖寶樓金池
기혼차염즉점유지책 행의 수보루금지
爲悅目之觀 而非惑蕩之色
위염목지관 이비혹탕지색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보안스님

부산 감로사 주석

“무슨일 하든 마음공부 놓지말길”

보안스님을 뵈러 가는 길은 여느 스님들
처럼 산길을 걷는 수고로움 없이 차에서
내려 마당과 극락전 앞을 지나면 한담에
이루어졌다. 삐그덕 소리를 내는 오래된
문을 열고 들어선 스님의 처소는 산사의
고요와 적막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시중
에 위치한 감로사 한 칸에 스님은 그렇게
산사의 토굴 같은 수행처를 마련하고 조용
히 정진하고 계셨다.

“불퇴전(不退轉)”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린 담우앞에 가서 스님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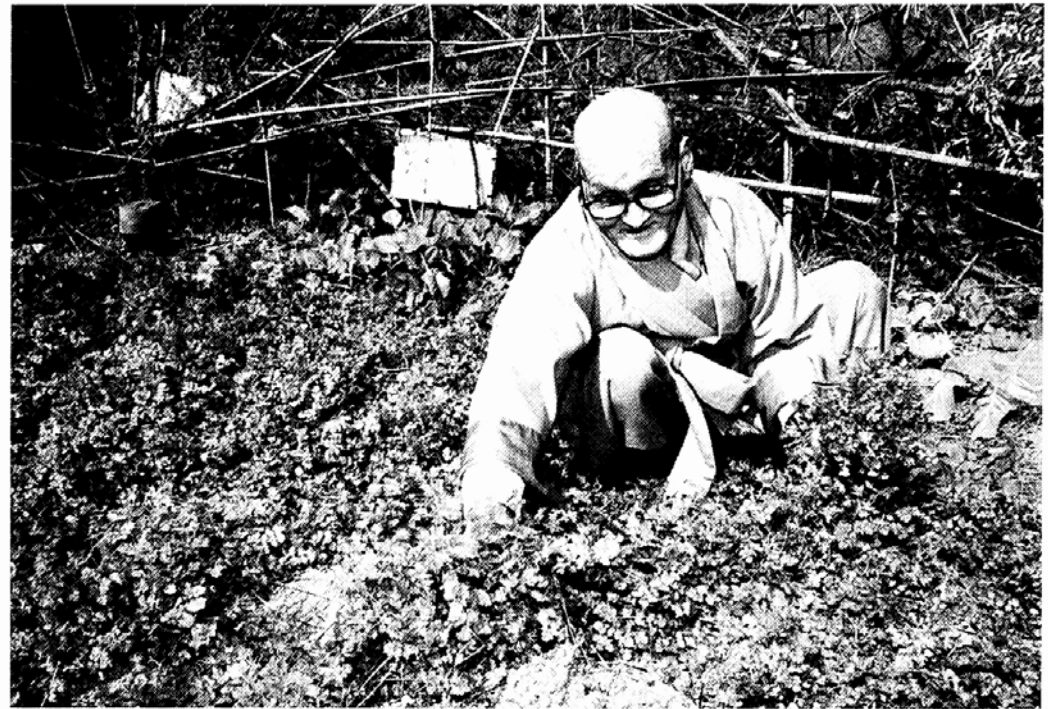
“스님! 스님!”

기척이 없다. 발길을 돌려려다 방문을
여니 보안스님은 식발에 몰두해 있다. 전
기 면도기로 머리를 속속 문지르다가 맑은
눈으로 밖을 내다보신다.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스님은 면도기를
일일이 분해하고는 작은 솔로 미세한 머리
카락을 털기 시작한다. 그 동작은 엄숙한
의식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식발은 식발시간보다는 면도기
청소 시간이 훨씬 더 길 듯 했다. 알뜰하게
관리하는 스님의 손길 탓에 몇 년 전 손수
구입한 면도기가 새 것처럼 보일 정도다.

스님의 방은 몸 하나 누이고 나면 빈 공
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 “이 집은 시중
은혜 많이 받아 지은 집이라요”하신다.
“시주은혜 입은 물건은 무엇이든 고맙게
아껴 써야 해요. 그래서 이 집도 허물지 않
고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그대로 있는 것
이지요.” 요즘은 보기 드문 연탄으로 난방
을 하는 스님 처소는 오일조일 옛 주택 양
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교화와 선지를 두루 갖추었던 보경 스
님이 이곳에 사할 때 시뻘들 들어오면 시
멘트 한포대씩 사모아 직접 지은 집입니
다. 50년 전부터 선방을 오가는 중간 중간
에 이곳을 드나들며 살다가 20년 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탄불을 한번도 꺼
뜨린 적이 없다는 스님은 연탄 한 장이면
철에 따라 길게는 18시간도 가고 요즘은
15시간동안 인기가 간다고 알려주신다. 연
탄 아궁이 불구멍도 스님 고유의 방식으로
몇 단계로 나누어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놓
았고 그 위에는 물이 담긴 세수대야가 울
려져 있다. 가지런히 쌓여 있는 새까만 연
탄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에
적어 전도공상의 삶속에서 이동바통 살아
가는 중생들을 향한 단호한 꾸지람 같았
다. 한번도 꺼진 적이 없는 연탄불처럼 이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 내 힘일”이라고 강조하시는 보안스님은 허실의 노구에도 밭 일구고 채소 가꾸는 일을 직접 하신다.

“시주은혜 입은 물건
무엇이든 고맙게
아껴서 쓰세요

어저은 스님의 수행력이 활활 타오를 준
비를 하고 있는 생연탄 속에 담겨 있는 듯
했다.

풍족할수록 더욱 부족함을 느끼며 만족
을 모르는 세태를 저만치 비껴가 있는 스
님의 안분지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미 바깥의 어떠한 경계도 스님의 마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만들지 못하는 듯 보였
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안으로
나무와 돌같이 동요함이 없으며 밖으로는
허공과 같이 막힘이나 장애됨이 없고 주관
과 객관도 사라져 버린 듯 다만 일상이 조
용히 이어질 뿐이었다. 스님은 이러한 조
용한 일상과 모습을 늘 견지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백희 낭떠러지를 걸듯 일삼
으로 이어온 60년 수행을 걸사리 가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복이 많아 출가 수행자로 평생을 살았
어요. 처음 표종사로 출가했을 당시 총무소
임을 보던 스님이 <초발심자경문>을 가르
쳤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글 배우면 팽초
판다면서 참선을 하라고 일러주셨죠.” 그
말은 초발심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참선
으로 일관하게 하는 출발이 되었다.

은사스님이셨던 자운스님의 ‘종로로 잘
하라’는 당부를 ‘참선 잘 해서 깨달음에 이
르라’는 말로 새겨들었다. 그렇게 봉암사,
상원사, 내원사, 도리사 등 선객이 모이는
선방이면 전국 어디든 마다 않고 정진했다.
“처음 선방에서 참선할 땐 지금처럼 깨
달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던 때라 어
려움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래 앉
아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졸음을 이겨
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차츰 참선의 진면목
을 알게 되어 안거내내 때도 있고 공양도
있는 채 ‘이뵈고’를 이어가곤 했지요.”

몇시간이고 앉았다보니 엉덩이가 짓무르
고 상처가 생겨 피고름이 날 때도 많았
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 심근 웃으신
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을 얘기가 나
오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성철스님, 또 한암스님의 제자였던 보
문스님과 내원사, 봉암사 등지에서 공부할
때가 참 재미있었어. 성철스님과 보문스님
은 묵언 정진하며 밤을 잊고 참선했는데
참 치열하게 공부했어. 공양주 소임보던
스님이 힘들어 중도에 떠나버려서 내가 공
양주 소임을 보면서 함께 공부했는데 정진
틀틀히 너무 한심 해놓고는 또 앉곤 했지.
앉으면 앉는 대로, 또 나무를 할 땐 그때 대
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허공을 꼭 채
우고도 남을 정도였고... 그때나 지금이나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 내 일의 전부예요.”

스님은 지금도 선문출요나 경허선사의
참선곡을 지침 삼아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잠을 자면서도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참다
운 공부이며 견고 말하고 발걸음 속에서 그
것을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참다운 공
부라고 일러주신다. 지난해에는 함안의 영
원사에서 밭 일구고 아채 가꾸는 것으로 한
철 공부를 대신했다. 지금도 감로사에서 더
덕, 상추, 고소 등 갖은 아채를 손수 길러 대
중들과 나누어 먹고 있다.

출가이후, 큰 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본
적도 없고 주지 소임을 맡아 본 적도 없는
스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명예와 권력을 떨

판매품

- 元白 (한방화장품)
○ POINT 24 (비만해소)
○ 元白 (한방비누)
○ 원백 (맛사지제)

전국지사

고전불가비법

- 불자로서 대규모로 사업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개인사업 하실분
■ 현 유사업종에 종사 하시는분

대리점모집

개발품

- 般若 (두뇌개발)
○ 감로화정 (당뇨)
○ 太平水 (숙취해소)
○ 清心精 (기도용)

대한불교 太聖宗 총무원
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華林寺

대구 북구 읍내동 801번지(2F)
TEL : 053)322-8377(대표)
322-8302-3
FAX : 053)322-8307

복지마을 華林園
주식회사 일광한방

※ 본사업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화림원·대한불교 太聖宗 총본산 건립의 재정으로 쓰여 집니다. ※